

자료제공 : 2024. 6. 5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

어르신복지과장

김형태

02-2133-740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4쪽

장사문화팀장

이광구

02-2133-7428

'초고령 사회 눈앞'... 서울시, 화장수요 증가 대비해 화장로 늘린다

-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 비롯 유족대기실·주차장 확충... 내년 7월 준공
- 준공 시 서울 시내 화장로 총 38기로 늘어... 일 평균 172→198건 화장 가능
- 올해 초, 화장공급 부족 대응 위해 인력 확충·운영시간 연장·스마트 화장로 도입
- 시 “미래 내다보고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하루빨리 유족 불편 없도록 확충 노력”

-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‘초고령 사회’ 진입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늘어나는 화장(火葬)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시설이 확충된다.

※ 2025년 대한민국 ‘65세 이상 고령인구’ 20.6%로 전망(2023 고령자통계, 통계청(2023.9.26.))

-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(서초구 원지동)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·주차장 등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.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추모공원·서울시립승화원을 합해 서울 시내 화장로는 총 38기로 늘어나고, 하루 평균 172건→198건의 화장할 수 있게 된다.

- 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, 일시적이지만 화장장 부족 사태가 발생하
기도 했을 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미래 화장 수요에
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장로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.
- 실제로 통계청은 향후 4년간 서울 시내 사망자 수는 연간 1,240
명~2,200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, '28년에는 관내 1일 화장
수요가 170건에 이르고 '40년 시점에는 사망자 수가 현재(약 6
만 명) 대비 2만 명 이상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	2040년
관내 사망자 수(명)	59,420	60,690	62,940	64,180	66,450	...	88,912
화장수요(건/일)	152	155	161	164	170	...	227

〈서울시 사망자 수 예측(통계청)〉

- 신규 화장로 4기는 기존 화장로의 좌·우측 서고와 창고 유희공간을
활용해 설치되며 유족대기실 현재 10실→ 14실로, 주차면도 현재
128대→ 178대로 각각 늘린다.
- 기존 건축물 철거, 설비 이설 등 주요 공사는 화장장을 이용하는
유족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화장이 종료되는 19시 이후 진행
된다.
- 시는 올해 초 고령화, 계절적 요인 등으로 발생했던 화장 공급 부족
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 인력을 충원하고 화
장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화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'스마트
화장로'를 도입한 바 있다.

-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그동안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화장 예약을 못 해 4·5일장을 치르거나 멀리 원정 화장 가는 등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”며 “화장로 증설은 미래를 내다보고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하루빨리 유족들이 불편 없이 경건한 분위기 속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첨부1〉

추모공원 전경 및 로전실

